

‘대전 SNS 스타’ 광주 원정 악플러 폭행

악어 사육으로 페이스북 팔로워 4만명 20대 남 지인 3명과 10대 납치...“사육 금지종” 논란도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직접 광주로 와서 악플을 단 청소년을 납치,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은 악어 사육 동영상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유명해진 ‘SNS 스타’가 추종자를 이끌고 악플을 단 청소년을 해코지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사육하는 악어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가 키우는 악어가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 금지 품목인데 개인 사육이 금지된 ‘삼악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서부경찰은 자신이 이용하는 페이

스북 팔로워를 이끌고 10대 청소년을 수차례 때린 혐의(공동폭행 등)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김씨는 지난 23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에 사는 A(17)군을 유인해 차량으로 납치, 북구 망월동의 공원묘지 등지로 1시간여 끌고 다니며 지인 3명과 함께 집단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팔로워가 4만명이 넘는 ‘SNS 스타’급인 김씨는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악어 사육 동영상에 A군이 지난 22일 가족을 들먹이며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행은 A군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



SNS에서 캡처한 김씨의 악어 사육 모습.

한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김씨가 팔로워를 이끌고 청소년을 납

치·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상에서는 김씨가 저지른 사건 소식과 함께 그가 키우고 있는 악어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김씨가 사육하는 악어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은 물론 거래가 금지돼 있고, 가정에서도 키우는 것이 금지된 삼악어라는 주장이 SNS에서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 스타급 이용자가 추종자를 이끌고 페이스북에서 악플을 단 청소년을 납치폭행한 사건으로 해당 악어가 멸종위기종인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청 ‘3·1절 태극기 사진전’ 준비 분주
크기 등 110여점이 선보인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3·1절 97주년 기념 ‘태극기 특별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1882년 고종 지시로 최초로 제작한 태

독서토론 열차타고 ‘안중근 의사 흔적 찾기’

전남교육청 ‘시베리아 횡단 열차학교’ 7월28일~8월12일

올 해 진행되는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 열차학교’는 안중근 의사의 조국애와 독립정신을 핵심 키워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7월 28일 출발, 8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중국 대련~모스크바간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 열차학교’ 일정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방문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안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이 있는 대련, 생가가 있는 훈춘, 안중근 의사가 단지(斷指) 동맹을 결성한 독립운동

의 현장인 크라스키노를 독서토론 열차학교 일정에 포함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모스크바까지 이동하며 유라시아 대륙 위에 놓인 항일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는 일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독서토론열차 참가 학생 120명이 5월 중 장흥 해동사 안중근 의사 사당을 참배해 숭고한 뜻을 기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키로 했다. 장흥군 장동면에 위치한 해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죽산 안씨 문

중이 매년 3월이면 제향을 지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론열차 참가 학생들이 안중근 의사의 열을 찾고 역사적 현장을 직접 보면서 아픈 우리의 역사를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 열차학교는 독서·토론 수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중인 전남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이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항일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친 살해’ 화순 10대 구속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10대(광주일보 2월26일자 6면)가 구속됐다. 28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김모(18)군을 지난 26일 구속했다.

김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께 화순군 도암면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수차례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고등학교 동창 양모(18)군을 불러 인근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시신 유기를 도운 양군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3 해질 18:27

바다 물결 높아요!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1/2, 보성: -1/0, 순천: -1/2, 여수: 0/2, 영광: -3/0, 나주: -4/2, 진도: 0/2, 완도: 0/2, 진주: -2/0, 구례: -4/1, 군산: -3/0, 강진: -2/1, 남원: -3/1, 해남: -3/1, 옥산도: 1/1, 장성: -4/1

◇지역별 날씨(℃) (계속)
광주: -1/2, 보성: -1/0, 순천: -1/2, 여수: 0/2, 영광: -3/0, 나주: -4/2, 진도: 0/2, 완도: 0/2, 진주: -2/0, 구례: -4/1, 군산: -3/0, 강진: -2/1, 남원: -3/1, 해남: -3/1, 옥산도: 1/1, 장성: -4/1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2.0~4.0, 남부서해 앞바다: 북서~북 1.5~2.5, 남부남해 앞바다(동): 북서~북 2.0~3.0, 남부남해 앞바다(서): 북서~북 2.0~4.0

◇생황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물때
목포: 밀물 05:51, 썰물 11:02, 17:56, 23:16
여수: 밀물 00:26, 썰물 06:30, 12:27, 18:39

◇주간 날씨
1(화): -4/5, 2(수): -2/10, 3(목): 1/13, 4(금): 3/17, 5(토): 8/13, 6(일): 5/11, 7(월): 0/11

광주 1인당 사교육비 월 22만8천원

전남은 16만5천원...17개 시·도중 최저

광주지역 학부모들은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22만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16만5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적었다.

28일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8000원, 전남은 1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 1244개교 학부모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

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조사됐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경기를 비롯, 부산·대구·인천의 사교육비는 전년도보다 증가세지만 광주의 경우 전년도(23만1000원)에 견줘 1.4% 감소했고 전남은 전년도(16만4000원)보다 0.3%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도 광주·전남 모두 증가(광주 68.7%→68.8%, 전남 58.5%→59.6%)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변호사회, 지난해 무료 상담 949건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0건에 달하는 각종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2.6건, 월 평균 79건의 공익활동을 한 셈이다.

28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에 따르면 광주변호사회가 지난해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법률상담은 총 949건이었다. 대면법률상담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법률상담 268건, 형사당직변호사 상담 139건, 소액사건 지원 35건 등이다.

광주변호사회는 1993년 형사당직변호사 제도를 시작으로, 전 회원이 민원인을 직접 만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또 민사소액사건 지원변호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도 이어오고 있다.

광주변호사회에는 총 411명(광주 314명, 순천 57명, 목포 28명, 해남 9명, 장흥 3명)의 회원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PAPER COREN

산단단지 (15km), 개만금 (20km), 군산C (5km), 군산시청 (0.7km), 익산 KTX역 (18km)

한중 FTA 체결 - 새만금 시대 본격 개막!

새만금 시대 명품 복합도시 디오션시티의 시대가 열린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수혜지 군산 디오션시티의 첫 사업 푸르지오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톱 브랜드 명품단지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문화, 쇼핑, 주거를 한번에 누릴 수 있는 디오션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새만금의 관문인 군산의 화망이 되겠습니다.

디오션시티(The Ocean City)란? 새만금의 배후도시 군산에 들어서는 초대형 명품 복합도시입니다.

교육까지 | 최고의 교육시설 집중 배치(유치원 2개교, 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등)
미래까지 | 글로벌 자유 무역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의 배후 수혜지로 Top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조성되는 명품단지
생활까지 | 편리한 쇼핑·문화시설 및 유행형 스트리트몰 조성(예정)
자연까지 | 근린공원(1개)과 어린이공원(2개) 등 입도적 녹지량 건강 및 힐링 단지 조성(예정)
입지까지 | 군산C 및 새만금, 군산시청, 군산역 인접으로 전국적 사통망의 현실화

2016년 봄 e편한세상 분양 예정!

새만금 시대 명품 복합도시 디오션시티

큰 변화의 바람이 불다

QR Code